

순천 성가롤로병원, 전남권 최대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

산업시설 밀집 동부권 설치 필요성 꾸준히 제기…22억4천만원 투입

허석 시장 "의료취약지 응급기능 강화 등 대형재난 대비 역할 기대"

전남동부권에서도 연탄가스, 화재, 가스누출 사고 등을 당한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순천성가를로병원에서 16일 전남권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춘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을 갖은 고압산소치료센터에는 1인용 2대와 다인용(12인용) 고압산소치료기가 구비되어 있어 대형 재난사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압산소치료기는 전남지역에 목포한국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에 1인용 챔버만 각각 보유하고 있어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에서는 꾸준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순천시, 성가를로 병원은 전남동부권의 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2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소했다.

특히 고압산소치료기는 1대당 10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이면서도, 치료기 조작 인력과 전문 의료

진 배치가 필수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능력을 보유한 상급 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장비로 알려져 있다.

고압산소치료는 챔버안에 대기 압보다 2~3배가량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녹아들게 해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여러 질환의 증상을 개선해준다.

최근에는 급성 일산화탄소중독 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상처와 방



사선치료에 의한 골조적 손상 및 혈뇨성 방광염, 잠수 질환,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분야로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고압산

소치료기 도입으로 전남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이 강화와 함께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 시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센터 개소와 함께 성가롤로병원이 전남

지역 대표병원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대형재난 대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농협 보성군지부, 이동상담실 운영

만평지점서 100여명 대상 법률적불편·소비자문제 해소



농협 보성군지부(지부장 서희수)는 17일 보성농협 만평지점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100여명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열린 농협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정학 고액지원팀장과 한국소비자원 장원석 조정관등 전문가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개별 상담 시간을 가졌다.

서희수 지부장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농업인이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여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농업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위해 나섰다

5개 분야 52개 사업 발굴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지속된 가운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광양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밭 벗고 나섰다.

광양시는 그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행·재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해 왔다.

특히, 전남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하였고, 중앙정부·전남도 지원금 등 총 1,050억여 원을 지원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

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업을 5대 분야로 나누어 총 52개 사업을 발굴했다.

분야별 추진방향은 ▲생활 속 방역 ▲경제살리기 ▲일자리늘리기 ▲기업살리기 ▲민생안정 분야가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시청자미디어센터' 여수 유치 확정…미디어시대 '활짝'

국비 50억 원 확보 2023년 개관…여문지구 활성화 기대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실현하는 공공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여수에 문을 연다.

여수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수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다양한 수요층, 대학·방송사·사

회단체로 연계되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대통령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다.

일반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시설과 장비 대

여 등을 지원한다.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여수시 문수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3년 초에 건립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 지원을, 도와 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부지 제공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맡는다. 센터의 운영과 관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맡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고흥군,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재개

매월 8개 프로그램 상시운영 및 장남감 대여·나눔터 등 운영



고흥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던 공동육아 나눔터를 6월 상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금번, 6월 상시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모네모 알록달록 종이공예 등 아이들 집 중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금요일 오후에 주2회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지원센터 내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1,550여명이 이용 하였으며, 엄마와 함께 오감이 쭉쭉 등 7개 프로그램(36회) 및 꿈을 향한 여행 등 가족품앗이 프로그램과 장난감 대여·나눔터 운영으로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